도난당한 日 불상 오른손, 70년만에 발견

국보급 '황금불' 향약사상… 본체 아직 못찾아

도난당한 국보급 불상의 오른손이 70여년 만에 발견됐다고 일본 언론사 '현대비즈니스'가 10월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나라(奈良)에 있는 신약사사(新藥師寺)에 안치된 국보급 불상 향약사상(香藥師像)이 1943년 도난당한 이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이 향약사상의 오른손이 70여년 만에 발견되어 일본 불교계와 고고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향약사상은 일본 하쿠호(白鳳) 시대(645~710)에 만들어진 불상으로 황금불(黃金佛)로도 불릴 만큼 불상 조각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이 불상의 오른손을 찾는데 크게 공헌한 인물은 前 신문기자인 키다 마사코(貴田正子) 씨다. 키다 씨는 '산케이신문(產經新聞)' 기자로 재직할 때 도난당한 향약사여래상을 취재한 일을 계기로 불상의 행방을 추적해왔다.

2002년 기자직을 그만 둔 후에도 독자적으로 조사를 계속한 그는 신약사사의 주지 스님과 관련 인물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끝에 불상의 오른손을 봤다는 인물과 극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이만남이 결정적인 단서가 돼 불상의 오른손을 발견한 것이다.

불상 오른손은 도쿄문화재연구소로 보내져 과학조사를 거친 결과 하쿠호 시대 금동불임이 틀림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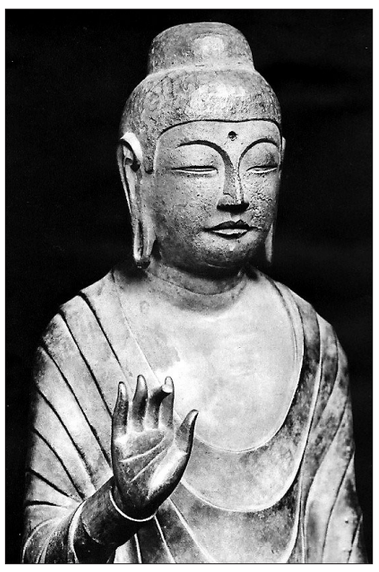
이 발견을 두고 도쿄예술대학 명예교수이자 일본조각사연구의 권위자인 미즈노 케이자부로(水野敬三郎) 씨는 "오른손의 발견은 미술사적으로도 큰 의의를 갖고 있다. 이 오른손이 무사히 보존돼 있었단 사실 자체가 정말 놀라울 따름"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현대비즈니스' 보도에 의하면, 이 향약사상은 지금까지 총 3차례 도난당했다. 도난당한 이유와 다시 되찾게 된 사건도 실로 드라마틱하다.

8세기 이후부터 신약사사에 안치된 이 불상은 병을 치유하는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다.

많은 중생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게 한 이 불상이 도난 사건과 만나게 된 발단은 메이지 시대(1868~1912)에 들어서 국보로 지정되면서였다. 국보로 지정된 불상이 일본 전역에 널리 알려지자 방문객들이 늘어났고 '황금불'이란 별칭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불상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풍문이 떠돌았던 것.

이로 인해 메이지 시대에만 2번의 도난사건이 발생하게 됐는데, 2번 모두 불상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 사실을 안 도둑들이 길가에 버렸기 때문에 되찾을 수 있었다.


메이지 시대(1868~1912)에 국보로 지정된 향약사상.

메이지 시대에 국보로 지정돼 '100% 순금' 소문에 도난 빈번 도둑들, 길에 버려 되찾았지만 1943년 3차 도난 후 행방묘연

그러나 두 번째 도난사건을 당했을 때 범인은 금인지 확인하기 위해 불상의 오른손목과 양쪽 발목 등을 절단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 당시 경찰과 주민들은 잘려나간 불상조각들을 찾아내기 위해 며칠 동안 근방서 수색작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향약사상의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3년 3월, 불상은 3번째 도난을 당하고 말았다. 불상이 도난당한 후 발견된 것은 떨어져나간 오른손 중지 끝마디뿐이었다고 한다. 이 마지막 도난사건 이후 현재까지 불상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채 발견되지 않고 있다. 형법상으로도 공소시효가 지나 이 도난 사건은 결국 수사종결 상태가 되고 말았다.

지난 20년간의 추적 취재 끝에 향약사상의 오른손을 찾아낸 키다 씨는 "불상의 흔적을 추적하는 동안 불가사의하다고 여길 만큼 놀라운 인연의 연속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불상의 오른손을 찾기까지 실로 부처님의 가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향약사상의 본체는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다. 키타 씨는 오른손을 발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머지 불상 전체를 찾아내기 위해 조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키다 씨는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여 〈향약사상의 오른손〉이란 제목의 저서를 출판할 예정이다.

주성원 객원기자


지난 10월 6일 태국 승려들이 탐마삿대 학살 40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천도재를 봉행했다. 사진출처=AP통신

"억울하게 죽은 학생들, 편히 잠들길"

10월 6일 방콕 탐마삿대서 '학살 40주년 합동천도재'

태국 승려들이 40년 전 군부세력에 의해 죽은 수 십 명 학생들의 넋을 위로하는 현장에 사부대중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온라인 매체 'spartan echo'는 10월 13일(현지시간) "지난 10월 6일 태국 승려들이 탐마삿대 학살 40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천도재를 봉행했다"고 보도했다.

'탐마삿대 학살'은 싱가포르로 축출됐다 1976년 귀환한 독재자 타놈 키티카촌(Thanom Kittikachorn)에 항의, 방콕 탐마삿 대학서 평화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군부가 학살하고 동네 자경단이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다.

비극적 사건에도 불구, 2014년부터 정권을 잡은 군부는 현재까지 사건을 언급하길 꺼리며 공식 집계상 사망자를 46명이라고 축소 발표했다. 특히 가해세력 중 처벌받거나 법정 심판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현재까지 군부의 폭력행태에 대한 처벌 전례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서 병폐가 심각하다.

또한 지난 2010년 민주화 시위서 과잉진압으로 사망자 92명 · 부상자 2000명 내는 등 군부의 억압적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40주년 추모행사서 연사로 초청된 민주화 운동가 홍콩인 조슈아 왕이 태국 정부에 의해 공항에 억류되기까지 했다.

현장에 참가한 생존자 수라찰트 밤룽쑥 前 학생회장은 "민주화를 위해선 군부의 영향력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만약 군이 경찰을 계속 지배한다면 민주화는 절대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솜킷 럿패쏜 탐마삿대 총장은 "정부선 사건을 은폐하려 하지만 탐마삿대는 학생들에게 학살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생존자를 학교 직원으로 기용하는 등 '역사바로잡기'를 진행 중"이라며 "젊은 세대들이 선행해 올바른 역사를 공부하고 있으니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승희 기자

베트남 청소년 불자들, "개 식용과 동물학대 멈춰라"

베트남불교위원회, '개 식용 반대' 캠페인 열어
불자 청소년 및 부모들 100여명 거리로 나서

베트남 불자 청소년 및 그들의 부모 100여명이 모여 '개 식용 반대'를 주창했다.

베트남 언론 'VNExpress'는 10월 17일(현지시각) "약 100명의 청소년과 부모들이 16일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에 모여 개 식용 사업과 동물학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며 베트남불교위원회(the Buddhist Sangha of Vietnam)에 의해 조직된 이 캠페인에 대해 보도했다.

'개 식용과 동물 학대를 멈춰라'란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 참여자들은 대부분 15세 이하 청소년으로 알려졌다. 참여자들은 오전 8~10시 노래하고 춤추며, 곳곳서 슬로건을 외쳤다. 등 뒤에 붙인 동물학대 모습이 담긴 사진은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특별히 준비됐다.

특히 어린이들은 그림을 통해 동물학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코뿔소의 뿔은 우리의 손톱과 같다", "우리 행성을 함께 보호해주세요" 등 삐뚤빼뚤 적힌 아이들의 글씨가 어른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효과적이었단 후문이다.

'VNExpress'는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된 이번 행사는 거리를 따라 행진하며 매우 평화롭고 이상적으로 진행됐다"며 "편안한 분위기 때문에 산책하던 많은 가족들도 함께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튜 동(Tue Dong) 베트남불교위원회 대표이자 행사 기획자는 "우리는 매주 다른 주제의 캠페인을 열고 있다"며 "현대사회서 외면받고 있는 환경 · 자연 · 동물 등의 중요성을 널리 제고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베트남불교위원회는 10월 16일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서 '개 식용 및 동물학대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출처=VNExpress

베트남불교위원회가 사회문제를 다룬 캠페인을 연 것은 이번이 4번째로, 직전 캠페인은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었다.

한편 아시아 개보호연합에 따르면 베트남은 매년 최소 500만 마리 개가 죽어가며, 중국에 이어 세계서 2번째로 가장 많이 개를 식용으로 소비하는 국가다. 아울러 지난 6년 간 세계서 코뿔소 뿔이 가장 많이 불법 거래된 국가기도 하다.

박아름 기자

"내 음악으로 치유된다면 그것으로 충분"

네팔 아니 초잉 돌마 스님, 보수세력 비판에 반박

비구니 스님이면서 뮤지션으로 유명한 인물이 있다. 바로 네팔의 아니 초잉 돌마(Ani Choying Drolma · 사진) 스님이다. 그는 네팔에서 불교의 아이콘임과 동시에 유니세프 친선대사이면서 네팔의 여학생들과 신장질환 환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다.

45세의 네팔 카트만두 출신의 비구니 스님은 보수 세력에 저항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저는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갖는 보수적인 승가계의 입장을 반대합니다."

아니 초잉 돌마 스님은 세계적인 가수 푸르부 T 남걀, 암촉 곰포 돈덥, 융첸 등과 연주를 했으며 15장의 앨범을 발표했다.



하지만 네팔의 보수 승가 집단은 그가 12년간 음악활동을 통해 부와 명상을 축적해 소박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한다. 수리야 샤카족 스님은 "비구니가 자신의 목소리를 팔아 돈을 버는 행위가 과연 성직자로서의 삶으로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돌마 스님은 "수익금은 교육자선단체와 신장병원 운영에 쓰인다"며 "비구니 스님이 항상 가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 음반을 통해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